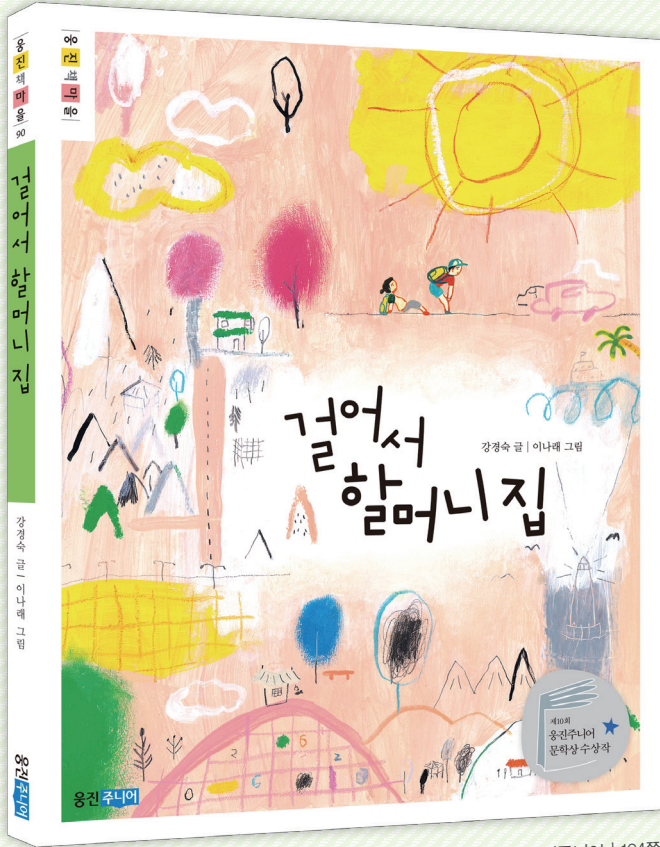


독서수업  
지도안  
교사용

초등학교 5학년

#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강경숙 글 | 이나래 그림 | 웅진주니어 | 164쪽

독서 준비	읽을 책을 정하고 책 미리 보기
독서	책을 즐기며 읽기
독서 후	생각 나누기, 독후활동지, 정리하기



## 차시별 수업 계획 예시

단계	개요	차시	활동 내용	비고
1	독서 준비	1	<p>읽을 책을 정하고 책 미리 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방법 알기</li> <li>· 문학 작품 가운데에서 읽을 책 정하기</li> <li>· 책 미리 보기: 표지</li> <li>· 책 미리 보기: 책의 저자와 머리말</li> <li>· 책 미리 보기: 차례</li> </ul>	학생 1인에 책이 1권씩 모두 있어야 함.
2	독서	2	책을 즐기며 읽기	3차시 동안 책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하기.
		3		
		4		
3	독서 후	5	<p>생각 나누기_독서 토의하기(1)</p> <p>생각 나누기_독서 토의하기(2)</p>	학생들에게 독후활동지를 나누어 주기.
		6	<p>독후활동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휘력 기르기</li> <li>·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1)</li> <li>·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2)</li> </ul>	
		7	<p>독후활동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3)</li> <li>·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4)</li> </ul>	
		8	<p>정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 활동 돌아보기</li> <li>· 더 찾아 읽기</li> <li>· 독서 습관 기르기</li> </ul>	



# 독서 지도안





## 📖 우리 학교 도서관 둘러보기

도서관에는 책이 아주 많은데 내가 찾는 책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서관에서 책을 찾았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 📖 책 제목을 보고 분야에 맞게 책꽂이에 책 꽂아 보기

책과 책꽂이마다 번호가 붙어 있으므로 도서 검색대에서 책 번호를 찾은 다음 그 번호를 찾아간다.

**TIP** 책 제목을 보고 어떤 분야의 책인지 짐작하여 책꽂이에 꽂아 봅니다.

## 📖 책 제목을 보고 분야에 맞게 책꽂이에 책 꽂아 보기

💡 도서관에서 책 찾기 놀이 하기

- ① 모둠 친구끼리 의논해 담당 구역을 정하고, 각자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씩 고른다.  
(예. 첫 번째 친구는 100번대, 두 번째 친구는 200번대, 세 번째 친구는 300번대에서 책을 고른다.)
- ② 쪽지에 자신이 고른 책 제목과 청구 기호, 쪽지 주인을 쓰고 책은 제자리에 다시 꽂아 둔다.
- ③ 쪽지를 반으로 잘라 책 제목이 쓰인 부분은 자신이 가지고, 청구 기호와 쪽지 주인이 쓰인 부분은 다른 친구와 바꾼다.
- ④ 친구와 바꾼 쪽지에 쓰인 청구 기호를 보고 책을 찾는다.
- ⑤ 쪽지 주인을 찾아가 자신이 찾은 책이 맞는지 확인한다. 맞으면 교과서 13쪽 표에 책 제목과 청구 기호를 쓴다.
- ⑥ 놀이를 되풀이하면서 책을 분야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참고** 한국 십진분류법

- [000 총류] : 지식 및 학문 일반, 이론 체계 및 시스템, 컴퓨터과학,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데이터
- [100 철학] 150 동양철학, 160 서양철학, 170 논리학, 180 심리학, 190 윤리학 등
- [200 종교] 220 불교, 230 기독교, 240 도교, 250 천도교 등
- [300 사회 과학] 310 통계자료, 320 경제학, 340 정치학, 370 교육학 등
- [400 자연 과학] 410 수학, 420 물리학, 430 화학, 440 천문학, 480 식물학, 490 동물학 등
- [500 기술 과학] 510 의학, 550 기계공학, 570 화학공학, 590 생활과학 등
- [600 예술] 630 공예, 640 서예, 660 사진예술, 670 음악 등
- [700 언어] 710 한국어, 720 중국어, 740 영어, 750 독일어, 760 프랑스어, 780 이탈리아어 등
- [800 문학] 810 한국문학, 840 영미문학, 860 프랑스문학, 870 스페인 및 포르투갈 문학 등
- [900 역사] 910 아시아, 920 유럽, 930 아프리카, 940 북아메리카, 950 남아메리카 등

**TIP**

'800'으로 시작하는 책은 문학 분야에 속하고, 특히 '810'으로 시작하는 책은 한국문학 작품이라는 것을 알려 주세요.



### ☞ 누구와 읽을지 정하기

학급 전체 읽기	반 친구들과 의논해 읽고 싶은 책을 함께 골라 읽어요.
모둠끼리 읽기	모둠 친구들과 의논해 읽고 싶은 책을 함께 골라 읽어요.
혼자 읽기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혼자 골라 읽어요.

### ☞ 문학 분야의 책 가운데에서 읽을 만한 책 고르기

- (예) 나는 동화책 한 권을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읽으면 좋겠어.
- (예) 나는 시를 좋아해. 친구들과 함께 시집을 읽고 싶어.
- (예) 문학 분야에는 동화, 시, 희곡, 수필같이 여러 갈래가 있구나.

### ☞ 친구들에게 책 추천하기

책을 추천할 때에는 책을 추천한 까닭이 자세히 드러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 📖 이번 학기에 읽을 책 정하기

💡 이번 학기에 읽고 싶은 책 목록 만들기

책 제목	지은이	쪽수	출판사
걸어서 할머니 집	강경숙	164쪽	웅진주니어
소년 혹은 괴물	밥 발라반	148쪽	이마주
사랑은 인기 순이 아니야	하나가타 미쓰루	168쪽	천개의바람

이번 학기에 읽기로 정한 책	걸어서 할머니 집
그 책을 정한 까닭	<p>(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상 수상작품이라서 작품성이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li> <li>· 제목이 흥미롭고 소재나 주제가 참신한 것 같아서이다.</li> <li>· 웅진책마을 시리즈의 다른 책들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읽었기에 이 책도 기대가 되고 읽어보고 싶다.</li> </ul>

**참고** 이번 학기에 읽고 싶은 책을 도서관에서 찾기 예

〈걸어서 할머니 집〉 ⇨ 한국문학 작품이므로 청구 기호 810번대에서 책을 찾는다.

〈소년 혹은 괴물〉 ⇨ 영미문학 작품이므로 청구 기호 840번대에서 책을 찾는다.

〈사랑은 인기 순이 아니야〉 ⇨ 일본문학 작품이므로 청구 기호 830번대에서 책을 찾는다.



### ☞ 자신이 정한 책의 앞뒤 표지를 살펴며 친구들과 질문 주고받기

- ① 자신이 정한 책을 뒤집어 펼쳐 놓는다.
- ②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본다.
- ③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책과 관련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본다.
- ④ 친구들과 함께 질문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 ☞ 『걸어서 할머니 집』의 표지 탐색하기

학생들 각자 갖고 있는 책 표지를 보면서 다음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합니다.



💡 책 제목을 보고 질문 주고받기

(예) 학생1 : 할머니 집이 어디길래 걸어서 간다는 걸까? 왜 걸어갈까?

학생2 : 혹시 부모님과 싸우고 가출해서 할머니 집에 가는 거 아닐까?

💡 앞뒤 표지 글귀를 보고 질문 주고받기

(예) 학생1 : “오기로 한 건 오게 되어 있어.”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학생2 : 먼바다에서 실종된 아빠가 기적처럼 돌아온다는 암시가 아닐까?

💡 앞뒤 표지 그림을 보고 질문 주고받기

(예) 앞표지 그림으로 보아 한여름인 것 같은데 어떻게 걸어갈 생각을 했을까?

뒤표지 그림에서 뒷모습이 나타난 자매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 책의 저자와 머리말을 살펴보고 내용 예상하기

책의 저자와 머리말을 살펴보고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 ① 책의 저자를 살펴보고 내용 예상하기
- ② 책의 머리말을 읽고 내용 예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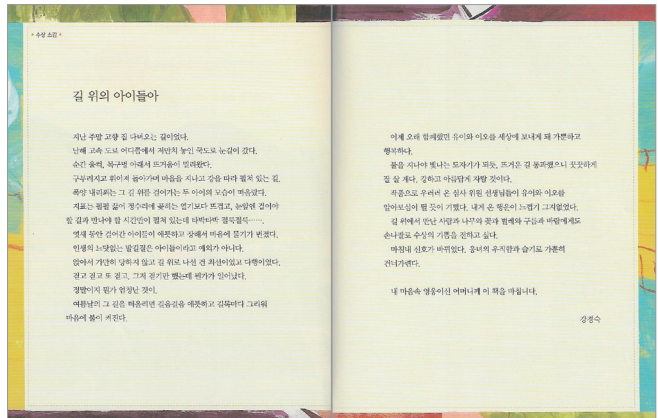
· 머리말은 작가의 말, 서문이라고도 해요. 작가님이 책을 쓰신 까닭이나 책 전체 내용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고, 작가님이 독자에게 바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 『걸어서 할머니 집』의 저자와 머리말(작가의 말) 탐색하기

책의 앞표지 날개에 나와 있는 글쓴이 소개와 4~7쪽에 나와 있는 머리말을 보면서 다음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 글 강경숙

경남 합천군 산가에서 태어났어요. 국제신문과 경상일보에 동화가 당선됐어요. 농사 짓는 틈틈이 글을 쓰고, 글 쓰는 틈틈이 고양이와 놀아요. 삶을 기꾸는 글을 오래 썼으며, 펴낸 책으로 <고라니 물도시락>과 <옛이야기밥>(공저)이 있어요. 오늘도 쓰레기 덜 내고 전기 적게 쓰려고 노력하며 힘차게 걸어갑니다.



책의 앞표지 날개 부분입니다. / 책의 162~163쪽입니다.

💡 글쓴이 강경숙 선생님이 대한 느낌은 어떠한가요?

⇒ (예) 농사짓는 틈틈이 글을 쓰고, 글 쓰는 틈틈이 고양이와 놀며, 쓰레기 덜 내고 전기 적게 쓰려고 노력하신다는 걸로 보아 소박하고 다정하며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는 분인 것 같다.

💡 글쓴이 강경숙 선생님이 말한 '길 위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 (예) 인생에서 만난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하는 것 같다.

💡 글쓴이 강경숙 선생님은 '길 위의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 애뜻하고 장하게 여긴다.

💡 이 책에는 글쓴이 박효미 선생님의 어떤 마음이 담겼는지 나타난 부분을 찾아보세요.

⇒ (예)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피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겨내겠다는 의지로 끈끈하게 걸어가기를 응원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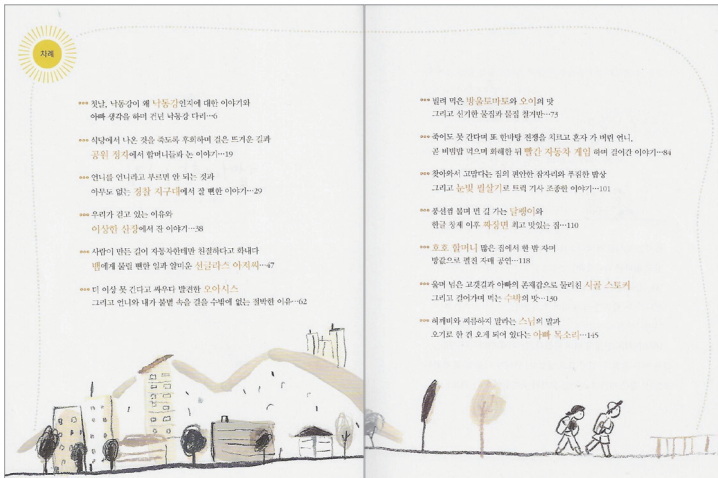


## 책의 차례를 살펴보고 내용 예상하기

차례를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알 수 있어요.

**TIP** 차례는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여 줍니다. 또한 책을 본 후 내용이나 문장을 찾아볼 때도 도움을 주지요. 책을 읽기 전에 차례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 『걸어서 할머니 집』 차례 탐색하기



책의 4~5쪽 차례입니다.

**TIP**

책을 읽기 전에 표지와 차례를 보고 미리 내용을 짐작할 때는 정답을 꼭 알아맞히지 않아도 됩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친구들과 자유롭게 주고받아 봅시다.

💡 이 책은 몇 개의 장(챕터)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13개

💡 이 책의 차례가 다른 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예) 각 장(챕터)의 제목이 매우 길고 자세하다. / 각 장(챕터) 제목에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 각 장(챕터)의 제목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예) 찾아와서 고맙다는 집의 편안한 잠자리와 푸짐한 밥상 그리고 눈빛 필살기로 트럭 기사 조종한 이야기 / 트럭 기사를 조종한 눈빛 필살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 각 장(챕터)의 제목을 보고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예) 공원 정자에서 할머니들과 논 일, 이상한 산장에서 잔 일, 자매가 싸웠다가 비빔밥 먹으며 화해한 일, 할머니 많은 집에서 방값으로 공연한 일, 시골 스토커를 물리친 일 등



## 책 읽기 책을 즐기며 읽기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하면서 앞에서 정한 책을 즐기며 봅시다.

책을 읽을 때 생각할 점	장면을 떠올리며 읽기	이야기나 시의 장면을 머릿속에 자세하게 그리며 읽어요.
	상상하며 읽기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상상하며 읽어요.
	인상 깊은 부분을 찾으며 읽기	재미있는 표현이나 기억에 남는 글귀를 생각하며 읽어요.
	다른 작품과 연결 지으며 읽기	다른 작품을 떠올려 견주어 보며 읽어요.
	자신의 삶과 연결 지으며 읽기	작품에 나온 세계를 자신의 삶과 관련지으며 읽어요.

## 『걸어서 할머니 집』을 즐기며 읽기-상상하며 읽기

**TIP** 상상하며 읽기는 책 내용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짐작해 보거나 책에 제시된 상황을 바꾸어 보는 읽기 방식입니다. 상상하며 읽기를 통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예) · 만약 자매가 숙박을 위한 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 자매가 걷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소식이 뉴스에 나왔다면?



## 『걸어서 할머니 집』을 즐기며 읽기\_인상 깊은 부분을 찾으며 읽기

읽은 날짜	읽은 쪽	인상 깊은 부분
○월 ○일	145쪽~161쪽	(예) “마음속 쓸데없는 생각은 다 허깨비란다.” 스님은 훈훈한 미소를 지으며 내 얼굴을 보았다. “허깨비하고 씨름하지 마라. 알았지?” (155쪽)

## 『걸어서 할머니 집』을 즐기며 읽기\_자신의 삶과 연결 지으며 읽기

**TIP** 학생들이 각자 이야기 속에서 인물의 상황 또는 심정에 공감이 가는 장면을 선택한 후, 비슷한 경험을 말해 보도록 합니다.

(예) ·자신의 삶과 연결 지을 장면 선택하기

⇒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다는 이오와 싸우고 유이 혼자 가 버린 장면 (89~90쪽)

·비슷한 경험 말하기

⇒ 엄마와 같이 마트에 가서 내 옷을 고르던 중 의견이 달라 말다툼을 했는데, 화가 나서 나 혼자 먼저 집에 와 버렸다.



## ☞ 생각 나누기-독서 토의하기

### 1) 책을 읽고 친구들과 생각 나누기

💡 책 내용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이야기 나누기

(예) · 누가 나오나요?

·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 인물이 사건을 겪은 뒤에 사건을 겪기 전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 책 내용에서 단서를 찾아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이야기 나누기

(예)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인물은 왜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했을까요?

(예) · 인물은 어떤 성격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는지 질문을 만들어 이야기 나누기

(예) ·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나 장면은 무엇인가요?

· 이 책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자신의 삶과 관련짓는 질문을 만들어 이야기 나누기

(예) · 인물이 느낀 것과 비슷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나요?

· 내가 그 인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 주인공이 겪은 것과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나요?

2) 앞에서 나온 질문 외에 여러 가지 질문 만들기

3) 주제를 정해 독서 토의하기

① 독서 토의 주제 이야기하기

(예) · 등장인물에 공감하거나 공감하지 못한 부분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기

· 책에 나온 세계와 현실 세계를 견주어 보는 내용으로 토의하기

· 두 책의 비슷한 점이나 다른 점을 이야기 나누기

· 책에서 다루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토의하기

② 토의 주제 정하기

③ 토의 주제를 생각하여 자신의 의견 정하기

TIP

자신의 의견을 밝힐 때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④ 다른 사람 의견을 듣고 함께 이야기하기

⑤ 토의하고 나서 작품을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하기



### 📖 『걸어서 할머니 집』을 읽고 생각 나누기-여러 가지 질문 만들기

**TIP** 이야기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상황이나 사건의 이해를 묻는 질문, 낱말의 뜻을 묻는 질문 등이 있고, 이야기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질문에는 주인공의 심리를 묻는 질문, 지은이의 의도를 묻는 질문,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질문 등이 있습니다.

책 내용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예) 자매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걸어가고 있나?
책 내용에서 단서를 찾아 답할 수 있는 질문	(예) 자매는 어떤 마음으로 걷고 있을까?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는지 묻는 질문	(예) 힘든 여정을 견뎌 내고 마침내 할머니 집에 다다른 자매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나?
자신의 삶과 관련짓는 질문	(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난데없이 닥쳤던 불행은 무엇일까?

### 📖 『걸어서 할머니 집』을 읽고 주제를 정해 독서 토의하기

#### 1) 독서 토의 주제 이야기하기

- (예) 걸어서 할머니 집에 가기로 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 (예) 자매는 걸어서 할머니 집까지 가는 것에 어떤 의미를 두었을까?

## 2) 토의 주제 정하기

토의 주제	(예) 자매는 걸어서 할머니 집까지 가는 것에 어떤 의미를 두었을까?
-------	--

## 3) 토의 주제를 생각하여 자신의 의견 정하기

내 의견	(예) 무기력과 우울을 극복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	(예) 먼바다에서 실종된 아빠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무기력과 우울하지만, 아빠와 함께 하기로 했던 일을 목표로 삼고 스스로 해내면서 무기력과 우울에 대한 극복 의지를 나타낸 것 같다.

내 의견	(예)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이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	(예) 아빠가 돌아오면 함께 하기로 했던 일을 자신들이 해내면 아빠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



### 어휘력 기르기

[복사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은 <걸어서 할머니 집>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 (가) ·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앵돌아져 양양거렸다. 기본형 : 앵돌아지다  
 · 나는 입술을 사리물며 바지를 툭툭 털어 보였다. 기본형 : 사리물다  
 · “네에? 아, 네에.” / 고개를 주억거리는데 다시 욕이 날아왔다. 기본형 : 주억거리다  
 · “뛰어!” / 텐겅하여 언니 뒤에 바짝 붙어 뛰었다. 기본형 : 텐겅하다  
 · 나는 아랫입술을 감쳐물고 말없이 고개만 저었다. 기본형 : 감쳐물다

- (나) · 졸음도 ㉠     로 몰려왔다. ⇨ 막무가내  
 ·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쳐 올 때나, 태풍을 만난 배가 바닷속을 자맥질하는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     . ⇨ 오금이 저렸다  
 · 뭐라고 말해 봤자 ㉢         한다고 하겠지. ⇨ 귀신 셋나락 까먹는 소리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쓰세요.

- 앵돌아지다 : ( ④ )      · 사리물다 : ( ① )      · 주역거리다 : ( ③ )
- 텐겁하다 : ( ② )      · 감쳐물다 : ( ⑤ )

- ① 힘주어 이를 꼭 물다.
- ② 뜻밖의 일로 놀라서 허둥지둥하다.
- ③ 고개를 앞뒤로 천천히 끄덕거리다.
- ④ 노여워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뒤틀리어서 싹 돌아서다.  
(예문) 그 아이는 앵돌아진 표정으로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 ⑤ 아래위 두 입술을 서로 조금 겹치도록 마주 붙이면서 입을 꼭 다물다.

2) 다음 뜻을 참고하여 (나)의 빈칸 ㉠~㉣에 들어갈 표현을 쓰세요.

- ㉠     : 달리 어찌할 수 없음. ⇨ 막무가내
- ㉡     : 저지른 잘못이 들통이 나거나 그 때문에 나쁜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 ⇨ 오금이 저렸다
- ㉢        : 이치에 닿지 않는 엉뚱하고 쓸데없는 말.  
 ⇨ 귀신 쫓나락 까먹는 소리  
'쫓나락은' 범씨를 뜻함. (주의) 씨나락(×), 쫓나락(○)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1)

[복사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 <걸어서 할머니 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흐응, 아빠. 안 가면 안 돼?”

“이오야. 이번에 아빠 갔다가 돌아오면 꼭 가 보자. 할머니 집까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앵달아져 앙앙거렸다.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자, 약속.”

손가락을 마주 걸고 흔드는데 ㉠뱃고동이 길게 울었다.

↳ 아빠를 태운 배가 출발했다는 뜻

⇒ 책의 14쪽입니다.

(나) “몇 학년이고?” / “저는 중학교 2학년이고 동생은 초등 6학년인데 할머니 집 가요. 걸어서.” /

“할머니 집이 오텐데?” / “합천요.” / “에앵!”

세 사람이 깜짝 놀란다. 할머니가 물었다.

“이러키 더운 날에 와?” /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 숙제예요.”

“시상에, 누가 그런 숙제를 냈노?” / “아빠가……. 아니, 우리가 낸 거예요.”

⇒ 책의 17쪽입니다.

(다) 널찍한 정자 마루에는 할머니들이 한가득이었다.

심심하던 차에 우리가 와서 반갑다는 듯 할머니들은 서로 자리를 내주었다.

㉡“남매가 뭐 팔러 다니누?” 실실 웃음이 나왔다. 언니를 의심 없이 남자로 본 거다.

“팔러 다니는 건 아니예요.” / “뎁은데 어데 간다꼬?” / “할머니 집예요. 걸어서.”

⇒ 책의 23쪽입니다.



1) (가)~(나)에서 '나'(이오)와 '언니'가 할머니 집에 가는 이유를 찾아 정리해 보세요.

<p>(가) : 아빠는 '나'(이오)에게 이번에 갔다가 돌아오면 할머니 집까지 꼭 가 보기로 약속했음.</p>	<p>(나) : 합천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은 '나'와 '언니'가 스스로 낸 자신들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음.</p>
---	--

2) (가)의 밑줄 친 ㉠에서 '아빠'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써 보세요.

⇒ (예시답안) '나'의 아빠는 배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배를 타고 떠났을 것이다.

3) (다)의 밑줄 친 ㉡에서 '할머니들'이 오해한 내용을 파악하여 써 보세요.

⇒ (예시답안) '나'의 언니를 남자라고 오해했고, 남매가 물건을 팔러 다니고 있다고 오해했다.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2)

[복사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 <걸어서 할머니 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날씨가 이만하기만 해도 정말 좋겠다, 그치?”  
 “응. 그런데 언니, 오늘 어디서 잘 거야?”  
 “조금 더 가서 정하자. 짐질방이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언니라고 부르지 말래도.” / “호응, 오빠, 다리 아파.”  
 내 말에 언니가 헤헤헤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김해 시가지를 벗어나 작은 고개 하나를 넘었다.  
 해가 서산으로 막 넘어가려 할 때 김해 경찰서 주촌 치안센터 앞에 도착했다.



⇨ 책의 31쪽입니다.

(나) 그런데…… 돌아오기로 한 날 아빠는 오지 않았다.  
 모항인 라스팔마스로 돌아오던 아빠 배는 소수 민족의 총격을 받았다고 한다.  
 배에 화재가 났고 선원들은 바다에 뛰어 들었다.  
 아빠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소식에 엄마는 모로코로 떠났다.  
 나는 점점 말을 잃었다. 웃음과 잠까지 함께 잃어버렸다. → ‘나’(이오)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날마다 북아프리카와 대서양 지도만 들여다봤다.

⇨ 책의 46쪽입니다.

1) (가)에서 '언니'가 '나'(이오)에게 ㉠과 같이 말한 이유를 추측하여 써 보세요.

⇒ (예시답안) 여자인 언니와 여동생이 여행을 다니는 것이 알려지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 책의 6쪽. 짧은 머리에 눌러쓴 모자와 옷차림이 누가 봐도 남자다. → 일부러 남자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윗글 (나)는 '아빠'의 실종 소식에 '엄마'도 모로코로 떠나서 '나'(이오)와 '언니'만 남은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질 것인지 (나)에 나타난 '이오'의 모습과 비교하여 써 보세요.

⇒ (예시답안) 만약 '나(이오)'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언니가 있다고 하더라도 막막하고 불안할 것 같다. 하지만 '나'처럼 지도만 들여다보며 점점 말과 웃음과 잠까지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할 일을 잘 하며 씩씩하게 지내고 있어야 부모님이 무사히 돌아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3)

[복사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 <걸어서 할머니 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으씨, 흙은 왜 부어 놓은 거야?” 언니가 2차선 갓길에 수북이 깔아 놓은 흙을 보고 투덜거렸다. 자세히 보니 흙에 빨간 새싹들이 뽀족뽀족하다.

“무슨 꽃씨 같은데…….” / “뭐? 꽃씨! 말도 안 돼.”

흥분하는 언니 말이 맞다. 길옆은 온통 논인데 농부들은 어디로 다니라고.

“사람이 만든 길이 사람을 너무 무시해. 순전히 자동차만 위하고 말이야.”

트럭을 피해 길옆으로 비키면서도 언니는 불통거렸다.

⇨ 책의 50~51쪽입니다.

(나) 한순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앞으로 쑥 내밀었다. 멍함

흐옴, 숨을 들이마시니 허공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오야! 위험해.”

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언니는 나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내 가슴속에서도 뜨거운 것이 몽텅몽텅 올라오더니 울음이 터

져 나왔다. / “어, 어어엉……. 아빠!”

언니는 내 등을 계속 쓸었다. 울음이 잦아들자 언니가 말했다.

“아빠랑 가기로 한 길, 우리 둘이 가 보자. 이 언니만 믿어.”



⇨ 책의 70~72쪽입니다.

1) (가)에 나타난 '길'에 대하여 정리해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갓길의 흙에 빨간 새싹들이 뽀족뽀족하게 나 있고, 길옆은 온통 논인데 농부들이 다닐 길이 없음.

+

사람이 만든 길이 사람을 너무 무시하고 순전히 자동차만 위해서 사람은 트럭을 피해 길옆으로 비켜야 함.

2) (나)의 글과 그림에서 느껴지는 '나'(이오)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여 써 보세요.

⇒ (예시답안) 멍하고 허무하면서도 울컥하는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다.

3) (나)에서 '나'(이오)를 보는 '언니'의 마음은 어땠을지 짐작하여 써 보세요.

⇒ (예시답안) 안타깝고 가슴 아프면서 걱정스럽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4)

[복사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 <걸어서 할머니 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갈색 털이 피에 젖은 채 모로 누운 고라니…….

“치인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언니가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차바퀴에 깔려 납작해진 생물을 몇 번이나 봤지만 이렇게 큰 동물은 처음이었다. 감지도 못한 까만 눈을 보니 울음이 터져 나왔다.

“으영영영. 집에 있지 찾길에는 왜 왔니, 고라니야…….”

고라니가 꼭 길에 나와 있는 우리 처지만 같아 큰 소리로 울었다.

“도대체 야생 동물 보호해 줄 줄을 몰라. 썩썩 달리기만 하고 말이야.”

⇒ 책의 133쪽입니다.

(나) “그리고 이오야.” / “네?” 스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깜짝 놀랐다.

“새벽에 유이한테 아빠 얘기랑 다 들었어. 장하다.”

스님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나는 땅바닥만 내려 본 채 잠자코 있었다.

① “마음속 쓸데없는 생각은 다 허깨비란다.”

스님은 훈훈한 미소를 지으며 내 얼굴을 보았다.

② “허깨비하고 씨름하지 마라. 알았지?” / “……네에.”

허깨비.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이제 그만 가 봐라. 어유, 멋진 녀석들.”

⇒ 책의 155쪽입니다.

1) (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나'(이오)와 '언니'의 반응을 정리해 보세요.

벌어진 일 : 길 가운데에 차바퀴에 깔려서 갈색 털이 피에 젖은 채 모로 누운 고라니를 처음으로 봄.



'나'와 '언니'의 반응 : '나'와 '언니'는 고라니가 꼭 길에 나와 있는 자신들의 처지 같이 느껴져 큰 소리로 울었음.

2) (나)에서 '스님'이 말한 ㉠과 ㉡은 무슨 뜻인지 파악하여 써 보세요.

⇒ ㉠ : 마음속의 쓸데없는 생각은 헛것이다.

㉡ : 마음속의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속을 꿰치지 마라.

(해설) '허깨비'란 기(氣)가 허해 착각이 일어나,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체를 말한다.



## 📖 독서 활동 돌아보기

[복사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매우 잘함, 잘함, 보통임의 3단계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 책 표지, 차례, 그림을 살펴보고 읽을 책을 정했나요?
- 책을 읽을 때 생각한 점을 떠올리며 즐겁게 책을 읽었나요?
- 친구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며 책에 대한 생각을 활발하게 나누었나요?
- 문학 작품과 자신의 삶을 관련지어 생각해 보았나요?

## 📖 더 찾아 읽기

💡 자신이 읽은 책과 관련이 있는 다른 책을 더 찾아 읽어 봐요.

(예) 가족에게 일어난 일로 인한 걱정과 슬픔을 다룬 동화를 더 읽어보고 싶어.

(예) 주인공의 상황에 감정 이입이 되어 읽을 수 있는 동화를 더 찾아서 읽고 싶어.



💡 『걸어서 할머니 집』과 관련 있는 다른 책 더 찾아 읽기

· 읽고 싶은 책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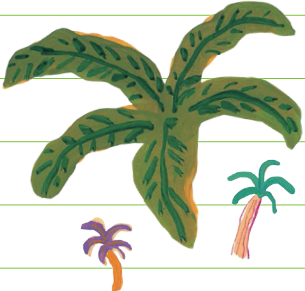
순서	책 제목(출판사)	글쓴이	이 책을 고른 까닭
1	〈아빠가 내게 남긴 것〉 (베를북)	캐럴 캐릭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다룬 동화를 읽어보고 싶기 때문이다.
2	〈비밀 사이트 네버랜드〉 (웅진주니어)	장한애	웅진책마을 시리즈의 다른 동화를 더 읽어보고 싶어서이다.
3	〈오이도행 열차〉 (미래아이)	홍종의	내 또래의 주인공의 상황에 감정 이입이 되어 읽을 수 있는 동화를 더 읽어보고 싶어서이다.
4	〈일투성이 제아〉 (이마주)	황선미	

📖 독서 습관 기르기

💡 이번 학기 동안에 자신이 읽은 문학 작품을 다른 작품과 연결해 보기

책 제목(출판사)	책을 읽고 떠오르는 다른 작품	그 작품이 떠오른 까닭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 (노란돼지)	〈리무산의 서울 입성기〉 (뜨인돌어린이)	탈북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 점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마간당 까뜨뜨〉 (단비어린이)	〈까매서 안 더워?〉 (파란자전거)	다문화를 주제로 하는 점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Lined writing area consisting of 20 horizontal green lines.



# 한글 한글



## 어휘력 기르기

이름 :

💡 다음은 <걸어서 할머니 집>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 (가) ·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앵돌아져 양양거렸다.  
 · 나는 입술을 사리물며 바지를 툭툭 털어 보았다.  
 · “네에? 아, 네에.” / 고개를 주억거리는데 다시 욱이 날아왔다.  
 · “뛰어!” / 텐겁하여 언니 뒤에 바짝 붙어 뛰었다.  
 · 나는 아랫입술을 감쳐물고 말없이 고개만 저었다.
- (나) · 졸음도 ㉠□□□□로 몰려왔다.  
 ·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쳐 올 때나, 태풍을 만난 배가 바닷속을 자맥질하는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 □□□□.  
 · 뭐라고 말해 봤자 ㉢□□ □□□□ □□□□ □□□□ 한다고 하겠지.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쓰세요.

- 앵돌아지다 : (       )      · 사리물다 : (       )      · 주억거리다 : (       )  
 · 텐겁하다 : (       )      · 감쳐물다 : (       )

- ① 힘주어 이를 꼭 물다.  
 ② 뜻밖의 일로 놀라서 허둥지둥하다.  
 ③ 고개를 앞뒤로 천천히 끄덕거리다.  
 ④ 노여워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뒤틀리어서 싹 돌아서다.  
 ⑤ 아래위 두 입술을 서로 조금 겹치도록 마주 붙이면서 입을 꼭 다물다.

2) 다음 뜻을 참고하여 (나)의 빈칸 ㉠~㉢에 들어갈 표현을 쓰세요.

- ㉠□□□□□ : 달리 어찌할 수 없음.  
 ㉡□□□□ □□□□ : 저지른 잘못이 들통이 나거나 그 때문에 나쁜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  
 ㉢□□□ □□□□ □□□□ □□□□ : 이치에 닿지 않는 엉뚱하고 쓸데없는 말.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1)

이름 :

💡 다음 <걸어서 할머니 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호응, 아빠. 안 가면 안 돼?”

“이오야. 이번에 아빠 갔다가 돌아오면 꼭 가 보자. 할머니 집까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앵돌아져 앙양거렸다.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자, 약속.”

손가락을 마주 걸고 흔드는데 ㉠뱃고동이 길게 울었다.

(나) “몇 학년이고?” / “저는 중학교 2학년이고 동생은 초등 6학년인데 할머니 집 가요. 걸어서.”

/ “할머니 집이 오텐데?” / “합천요.” / “에잉!”

세 사람이 깜짝 놀란다. 할머니가 물었다.

“이러키 더운 날에 와?” /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 숙제예요.”

“시상에, 누가 그런 숙제를 냈노?” / “아빠가……. 아니, 우리가 낸 거예요.”

(다) 널찍한 정자 마루에는 할머니들이 한가득이었다.

심심하던 차에 우리가 와서 반갑다는 듯 할머니들은 서로 자리를 내주었다.

㉡“남매가 뭐 팔러 다니누?” 실실 웃음이 나왔다. 언니를 의심 없이 남자로 본 거다.

“팔러 다니는 건 아니예요.” / “뎁은데 어데 간다꼬?” / “할머니 집예요. 걸어서.”

1) (가)~(나)에서 ‘나’(이오)와 ‘언니’가 할머니 집에 가는 이유를 찾아 정리해 보세요.

(가) : 아빠는 ‘나’(이오)에게 \_\_\_\_\_

(나) : 합천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 (가)의 밑줄 친 ㉠에서 ‘아빠’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써 보세요.

⇨

3) (다)의 밑줄 친 ㉡에서 ‘할머니들’이 오해한 내용을 파악하여 써 보세요.

⇨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2)

이름 :

💡 다음 <걸어서 할머니 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날씨가 이만하기만 해도 정말 좋겠다, 그치?”

“응. 그런데 언니, 오늘 어디서 잘 거야?”

“조금 더 가서 정하자. 짐질방이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언니라고 부르지 말래도.” / “흐응, 오빠, 다리 아파.”

내 말에 언니가 헤헤헤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김해 시가지지를 벗어나 작은 고개 하나를 넘었다.

해가 서산으로 막 넘어가려 할 때 김해 경찰서 주촌 치안센터 앞에 도착했다.



(나) 그런데…… 돌아오기로 한 날 아빠는 오지 않았다.

모항인 라스팔마스로 돌아오던 아빠 배는 소수 민족의 총격을 받았다고 한다.

배에 화재가 났고 선원들은 바다에 뛰어들었다.

아빠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소식에 엄마는 모로코로 떠났다.

나는 점점 말을 잃었다. 웃음과 잠까지 함께 잃어버렸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날마다 북아프리카와 대서양 지도만 들여다봤다.

1) (가)에서 ‘언니’가 ‘나’(이오)에게 ㉠과 같이 말한 이유를 추측하여 써 보세요.

⇒

2) 윗글 (나)는 ‘아빠’의 실종 소식에 ‘엄마’도 모로코로 떠나서 ‘나’(이오)와 ‘언니’만 남은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질 것인지 (나)에 나타난 ‘이오’의 모습과 비교하여 써 보세요.

⇒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3)

이름 :

💡 다음 <걸어서 할머니 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으씨, 흙은 왜 부어 놓은 거야?” 언니가 2차선 갓길에 수북이 깔아 놓은 흙을 보고 투덜거렸다. 자세히 보니 흙에 빨간 새싹들이 뽀족뽀족하다.

“무슨 꽃씨 같은데…….” / “뭘? 꽃씨! 말도 안 돼.”

흥분하는 언니 말이 맞다. 길옆은 온통 논인데 농부들은 어디로 다니라고.

“사람이 만든 길이 사람을 너무 무시해. 순전히 자동차만 위하고 말이야.”

트럭을 피해 길옆으로 비키면서도 언니는 불통거렸다.

(나) 한순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앞으로 쑥 내밀었다.

흐읍, 숨을 들이마시니 허공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오야! 위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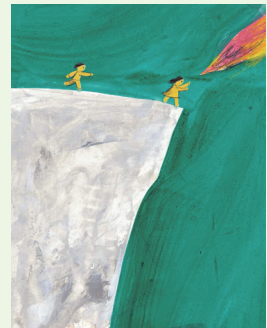
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언니는 나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

뜨렸다. 내 가슴속에서도 뜨거운 것이 뭉뚱뚱 올라오더니 울음

이 터져 나왔다. / “어, 어어엉……. 아빠!”

언니는 내 등을 계속 쓸었다. 울음이 잦아들자 언니가 말했다.

“아빠랑 가기로 한 길, 우리 둘이 가 보자. 이 언니만 믿어.”



1) (가)에 나타난 ‘길’에 대하여 정리해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갓길의 흙에 빨간 새싹들이 뽀족뽀족하게 나 있고, \_\_\_\_\_

+

\_\_\_\_\_ 순전히 자동차만 위해서 사람은 트럭을 피해 길옆으로 비켜야 함.

2) (나)의 글과 그림에서 느껴지는 ‘나’(이오)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여 써 보세요.

⇨

3) (나)에서 ‘나’(이오)를 보는 ‘언니’의 마음은 어땠는지 짐작하여 써 보세요.

⇨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4)

이름 :

💡 다음 <걸어서 할머니 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갈색 털이 피에 젖은 채 모로 누운 고라니…….

“치인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언니가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차바퀴에 깔려 납작해진 생물을 몇 번이나 봤지만 이렇게 큰 동물은 처음이었다. 감지도 못한 까만 눈을 보니 울음이 터져 나왔다.

“으영영. 집에 있지 찾길에는 왜 왔니, 고라니야…….”

고라니가 꼭 길에 나와 있는 우리 처지만 같아 큰 소리로 울었다.

“도대체 야생 동물 보호해 줄 줄을 몰라. 썩썩 달리기만 하고 말이야.”

(나) “그리고 이오야.” / “네?” 스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깜짝 놀랐다.

“새벽에 유이한테 아빠 얘기랑 다 들었어. 장하다.”

스님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나는 땅바닥만 내려 본 채 잠자코 있었다.

㉠ “마음속 쓸데없는 생각은 다 허깨비란다.”

스님은 훈훈한 미소를 지으며 내 얼굴을 보았다.

㉡ “허깨비하고 씨름하지 마라. 알았지?” / “……네에.”

허깨비.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이제 그만 가 봐라. 어유, 멋진 녀석들.”

1) (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나’(이오)와 ‘언니’의 반응을 정리해 보세요.

<p><b>벌어진 일 :</b></p>   	➔	<p><b>‘나’와 ‘언니’의 반응 :</b></p>   
-----------------------------------	---	---

2) (나)에서 ‘스님’이 말한 ㉠과 ㉡은 무슨 뜻인지 파악하여 써 보세요.

⇒ ㉠ :

    ㉡ :





A series of 20 horizontal green lines for writing, arranged in a standard primary school format with a narrow margin at the top and a wider margin at the botto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진주니어

값 9,500원



ISBN 978-89-01-22278-3  
ISBN 978-89-01-03863-6(세트)



KC 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